

못잇을 그날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2018년 8월의 깊은 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타고다닐 무궤도전차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몸소 시운전도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앓을 평범한 좌석에 자리를 잡으시고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며 제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에 몸을 싣고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를 누벼갈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대단히 만족하다고, 오늘은 년중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은 만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